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행복하도록 만드셨어요. 왜 행복하냐? 하나님을 닮도록 가난이 없어요. 죽음도 없고 마귀도 없고 죄도 없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또 자식을 낳는 통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또 없었어요. 자식을 많이 낳아도 너무 사랑스럽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걱정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면 영원히 행복할 것인데, 인간이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 되고자 하는 욕심,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선악과라는 과일로 약속을 파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니까 인간이 불행이 온 거예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게 되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먹고 사는 걱정을 많이 해요. 어떻게 살까? 노후는 어떻게 될까? 죽음의 걱정도 합니다. 죽으면 어떻게 할까? 또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될까? 죄짓고 편안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지으면 마음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지도 않는 자가 되었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으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냐하면 예수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가 사함 받았습시다. 여기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은 ‘좋은 환경, 대학 합격, 사업 잘되고 해서 기뻐하라.’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인도 살인강도라도 간통한 사람도, 도둑질한 사람도, 사기 친 사람도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은 다 용서해 주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롬8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죄 용서받았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지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사랑해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 대신 고난당하고 피 흘리고 죽기까지 하시면서 누구든지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과거는 묻지 않고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죄 없이 죽으신 예수님을 죄 없기 때문에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믿는 자 속에 계셔서 늘 믿는 자와 함께하는 자가 되었으니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제가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에게 가끔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니까 어떻습니까?’ 물으니 너무너무 기쁘대요. 저도 예수님 처음 믿는 순간 성령이 내게 오시니까 얼마나 기쁘지 샘 솟아나는 기쁨이 계속 풍풍풍... .

여러분은 잘 모르죠? 우리 교회에 처음 믿는 사람이 많은데 그분들 얼굴 보면요 다 변했어요. ‘야~ 구원받아 자녀 되니까 기쁘고 성령이 오시니까 기쁘구나. 우리가 미래도 죽음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미래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또 죽으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영접해서 영원한 아버지 나라 거기에는 돈 버는

거, 늙는 거, 죽는 거, 병 든 거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주의 사랑을 받으면서 찬송하면서 영원히 행복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그래도 답답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물었어요. ‘예수님 믿고 제일 좋은 게 뭐니까?’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요. 사람은 아무리 능력 있고 지혜가 있어도 한계가 오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91년도쯤 됐을 때 지하실에 교회가 있을 때 교회가 문제가 딱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서남북 아래위로 하나하나 방법을 써가니까 스물 몇 가지 방법이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아 어떤 방법으로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할 수 없이 기도했는데 제 느낌은 하늘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탁~ 갖다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사55장 성경을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고 내 길과 너의 길은 달라서~’ 이 설교를 많이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을 때 부모등 아무도 우리를 도울 수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구하라. ~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을 떠날 때도 우리의 모든 과거까지도 다 하셔서.. 왜 그럴까요? 한마디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시다. 종교개혁 이후에 아주 중요한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대소요리문답이라는 문답집이 있는데 첫 번째 물음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래되어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고 모든 일이 그런 사람은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려우면 ‘이거 뭐 하나님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이런 사람은 자녀일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압니다. 요한일서5: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 성령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라고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우리 속에 성령이 계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천국을 보장하셨어요.

사랑의 특징이 뭐예요? 사랑의 특징은 자꾸 해주고 싶어요. 사랑의 특징은 자꾸 말하고 싶어. 또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 함께 있고 싶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기뻐하라. 가 아니라 주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서 그 은혜의 감격으로 항상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안 행복하는 건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하시며 ‘기뻐해라.’ 또 뭐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항상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엡 6: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은 옛날 성경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우리가 시간 정해서도 기도하지 만 늘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하고 늘 대화하기를 원해요. 또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대화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기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올 때만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 하실 때도 늘 기도하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제가 초청주일의 설교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 되십니다. 이렇게 ‘주님! 초청 주일인데 제가 무엇을 어떻게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두 주 전에 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인데 그 길이 예수님이 중보자 되신다는 걸 전해라.’ 그래서 전한 거예요. 금요일 날 또 멀리 심방 갔다가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 동생이 암 말기인데 ‘목사님 예수님 전해주세요.’ 해서 가서 ‘선생님 모든 사람은 모든 일을 할 때 준비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을 한번 떠납니다. 그런데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준비됩니다.’ 하고 자세히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어요. 아내분도 같이 영접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살 동안도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언제 가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 준비되었습니다.

또 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보면 항상 이란 말이나 쉬지 말고 라는 말이나 범사나 똑같은 말이에요. 세 가지가 다 항상 해야 될 거예요. 항상 어떻게 해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좋은 일, 힘든 일, 아픈 일, 슬픈 일 감사가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합력하여 내가 선을 이루겠다.’ 롬 8:2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 곧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것, 천국 갈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권세 주신 것,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 된 것도 감사 늘~ 감사 또 어떤 일도 이것이 축복이 된다. 사람들은 원하는 게 뭐냐 하면 부자 되는 거, 높은 자리 가는 거, 건강한 거 잘 되는 거.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급한 게 있습니다. ‘너가 구원받았느냐?’ 이게 더 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긴급한 게 뭐냐 하면 구원하는 거. 천하를 놓고도 생명이 없으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느냐? 이 생명은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어려운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그런데 그것이 다 합력하여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살게 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또 계획이 있구나. 축복 주시려고 날 훈련시키고 성경에도 그런 어려움과 훈련을 받지 않고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의 특징은 감사하지도 영화롭게도 안 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특별히 추수 감사주일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은 약속하

셨습니다.

저기 광야에서 젖과 꿀이 땅을 주며 너 거기 들어가면 농사 잘할 거야. 꼭 잊지 말고 나한테 감사 예배드려 그제 추수 감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1년 동안 먹을 걸 주심을 믿고 감사해서 예물 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시고 농사하고 직장 다니고 일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이게 단수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의미도 있고 둘째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건 하나다. 기뻐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까? 기도하면 기쁘고 응답이 와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기뻐하지 않는 감사가 없지 않아요. 기도 없이 기쁨이 있나요?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알고 깨달으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제일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다 고할 수 있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아무리 편한 대화도 내 마음을 다 내어놓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대화하면 제일 편한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다 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제일 편한 하고 제일 행복한 대화가 하나님과의 대화이기에 계속 사랑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거 알고 너 스스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뻐서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대화하고 감사해서 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계속...제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감사합니다.’,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준 것도 감사하고 교회도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식당에서 수고해주시니까 감사하고 등등 수고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지요.

여러분이 주를 위한 수고가 고전15:58절에 보면 너희 수고가 하나도~ 지난주에 전도하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밥 사주고 돈도 들고 안 잊어버리십니다. 여러분에게 상급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행복한 주의 성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나눔 질문1 : 말씀에 관련된 자신의 상황을 나눠주세요!**
- 나눔 질문2 : 자신의 삶에서 말씀을 통해 회개하게 된 부분, 도전이나 깨닫게 된 부분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 나눔 질문3 : 말씀을 통해 어떤 변화를 다짐하게 되었는지 나눠주세요!**

**온누리교회 055)386-0091**

<http://www.onnurimission.org>